

## 인권위, 헌혈 전 '동성 성접촉' 질문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혈하기 전에 실시하는 문진에서 동성과 성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헌혈 문진표에 동성끼리 성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킨 것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진정한 사안에 대해 이처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헌혈 기록카드 문진사항에는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 접촉이 있었다'는 문항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에이즈는 성 접촉의 대상이 동성이나 이성이나에 따라 감염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동성간의 성 접촉만으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문항은 에이즈 감염확률이 없는 동성애자를 무조건 헌혈에서 배제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04년 8월 9일)

## 中 연변지역 에이즈 확산추세

중국의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서 에이즈가 확산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홍콩강신문이 보도했다.

연변에서는 1994년 첫 에이즈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41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66%로 가장 많고, 혈액감염 32%, 감염 경로 미확인이 2% 등이며 직업별로는 농민이 56%, 귀국근로자가 36% 등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20대 감염자가 42%를 차지해 젊은층에 확산되고 있는 성개방 풍조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에이즈에 대한 예방치료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출국 근로자와 산업 연수생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귀국한 후에도 검사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4년 8월 6일)

## 美 유학생, 에이즈치료 해법 찾아내

미국에 유학중인 한국 과학도가 에이즈바이러스나 암세포를 퇴치 할 수 있는 획기적 치료제 개발의 해법을 찾아냈다. 미국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 박사과정 3년차인 송지준 씨는 바이러스 증식주범인 리보핵산(RNA)을 제거할 수 있는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송씨의 연구 결과는 세계최고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다. 송씨는 공동연구를 한 연구원들 가운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주저자'로 논문 공동저자 명단의 맨 앞에 올랐다. 송씨의 논문은 9월 3일자 사이언스지에 실릴 예정이며, 표지논문으로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세포내 RNA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을 처음으로 찾아낸 것. 송씨는 2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해 '고(古)세균'이라는 박테리아에서 이 조절 기구의 핵심 단백질인 '아저노트(Argonaute)'를 순수하게 정제하는데 성공했다.

또 아저노트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각종 RNA로 이뤄져 있어 아저노트에 의해 선별적으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암유전자를 인식하는 마이크로RNA와 아저노트를 함께 주입하면 발암유전자의 기능만을 골라 제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전물질인 디옥시리보핵산(DNA)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RNA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반응을 통해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생성된다. 과학자들은 5~6년 전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에 중요한 조절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문화일보 2004년 8월 5일>

## 에이즈 환자가 고의로 헌혈

보건 당국의 관리를 받아오던 30대 남성 에이즈 환자가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고의로 헌혈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부산에서 막노동하는 30대 초반의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고의로 헌혈한 사실을 확인, AIDS 예방법 위반 혐의(3년 이하의 징역)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포자기 심정에서 에이즈가 치료됐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헌혈했다"고 진술한 뒤 다시 잠적했다.

A씨는 헌혈 과정에서 헌혈자원자의 병력(病歷)을 전산 조회하지 않고 에이즈 감염 여부를 구두로 묻는 의례적인 문진(問診) 절차로 인해 순순히 헌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혈액은 검사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폐기처분돼 수혈 피해자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97년에는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보복성' 헌혈과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2002년에도 20대 여성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감추고 수백 차례 유행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선일보 2004년 8월 2일>

## 기능 보강된 에이즈치료제 잇따라 출시될 듯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존 치료제보다 기능이 보강된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HIV)치료제들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영국계 다국적기업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학술 심포지움에서 현재 개발 중인 자사의 HIV 치료제들을 소개했다.

GSK가 개발 중인 치료제들은 기존의 HIV 내성 균주에 강하고 HIV 복제를 제어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약물은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NRTIs)인 에피비어(Epivir)와 '지아겐(Ziagen)을 혼합한 '고정용량 복합제'이다.

이 제제는 음식이나 음료의 섭취여부와 상관없이 1일 1회 1알을 복용할 수 있는 최초의 고정용량 복합제라고 GSK는 밝혔다. 회사측은 이 복합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C)의 승인을 거쳐 올해 중에 미국과 유럽에서 우선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4년 7월 26일>

## 인, 에이즈 백신개발 임박

인도의 에이즈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고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가 보도했다. 인도 국립의료원(AIIMS) 산하 HIV(에이즈 바이러스)연구소의 프라디프 세스(미생물학) 박사팀은 자신들이 개발한 'HIV-1DNA'의 인체독성 실험을 완료하고 당국에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라사다 라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구팀이 몇 달 전 임상시험 허가를 요청했으며 전문가 그룹의 검토작업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세스 박사는 1996년부터 쥐와 원숭이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이 백신이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자 지난해 12월에는 인체독성 실험을 위해 자신의 몸에 이 백신을 직접 주사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세스 박사는 "이 백신은 '서브타입 C'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와 원숭이의 몸에서 완벽한 면역체계를 생성했던 것"이라며 "서브타입 C는 인도 에이즈 감염자의 95%가 감염된 바이러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사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완벽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그동안 백신주사를 맞은 동물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시험관에 넣은 뒤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을 살핀 결과 엄청나고 강력한 면역반응이 나타나면서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2002년에는 방갈로르 인도과학원(IIS)에서 70마리의 원숭이에게 이 백신을 주사했는데 지금까지 부작용을 보인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2004년 7월 21일>

### 대전 에이즈 감염자 58명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에이즈에 감염된 시민은 7명으로 지난 1995년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58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52명(89.7%), 여자가 6명(10.3%)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9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6명, 40대 15명, 50대 10명 순이었다.

감염경로가 밝혀진 51명 중 49명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이성간 성 접촉이 32명, 동성간 성 접촉이 17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2004년 7월 15일>

### 날 . 말 . 풀 . 이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가로열쇠

①이소룡이 출연했던 무술영화의 제목. ②신라 경순왕의 태재(?). 계곡에 들어가 마역을 입고 여생을 보냈다고 함. ③사사로운 일. ④서울 근방에서 무당들이 하는 곳. ⑤도물이 되도록 밀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는 일. ⑥아주 작은 알맹이. ⑦다수의 품명이나 인명 등을 기억하거나 점검하기 쉽도록 특별한 순서로 적어놓는 것. 첩들러○○○. ⑧임금이 세상을 떠나는 것. ⑨떡갈나무 갈참나무 물참나무 등의 열매. ⑩이 큰 사람의 별명. ⑪확실한 정래의 이력을 목적으로 운만 믿고 하는 행위. ⑫제일인자 또는 최우수 선수. ⑬집안 살림살이를 잘 다스리는 것. ⑭결혼의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의 거리. ⑮배집없이 완전히 깃추는 것. ⑯남자 머리형의 하나. 앞머리를 높게 하여 뒤로 밀어 붙이고 옆머리를 붙임.

#### 세로열쇠

①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 ②위태로운 경우. ④바리는 피음. ⑤가인. ⑥네 가지 아름다운 일. ⑦도롱이와 샷. ⑧신이 내리는 말. ⑨식인 상어. ⑩자물이고 남은 피륙의 조각. ⑪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지은 4대 비극의 하나. ⑫살을 감은 배들의 한 부분. ⑬진흙으로 만들어 찰물을 올리지 않고 구운 그릇. ⑭까닭. ⑮남이 자기에게 대하여 속으로 싫어하는 태도. ⑯헤어져서 흩어져 사는 가족. ⑰새로운 시대나 시기. ⑱백조. ⑳노를 짓거나 모퉁에 의해 추진하는 서양식의 작은 배. ㉠알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 자난호 정답

아	이	누		등	치	머	
자		비	아	남	지	호	
비	명		낙		마	수	결
	사	의		오	지		어
홍	수			사		가	중
두			수	리		수	로
깨	풀	배	기		내	수	채
	채	달		부	사	행	송
		부	사	리		무	도

# AIDS 게시판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감염인들의 복지와 새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하는 곳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세군 레드리본센터

### ▶ 감염인 자활지원프로그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감염인에게 근로기회와 수익활동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 ▶ 교육프로그램

- 토피어리(수공예) 강좌 : 월2회 총 16회(약 80시간), 교육장소(안양)
- 도자기공예 강좌 : 월2회 총 16회(약 48시간), 교육장소(삼선동)
- PC조립 및 수리 강좌 : 월2회 총 16회(약 48시간), 교육장소(레드리본센터)

### ▶ 신청대상자 최소한의 근로가 가능한 감염인

### ▶ 신청방법 구세군 레드리본센터 자활지원사업팀으로 신청(02-720-9627)

##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 재가복지 서비스

장애인 등 지속간병이 필요한 재가 감염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훈련된 감염인이 신청자의 요구에 맞게 집안 청소, 식사준비 및 보조, 목욕 및 구강간호 보조, 산책 보조 등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인권복지과로 신청 (02-2675-3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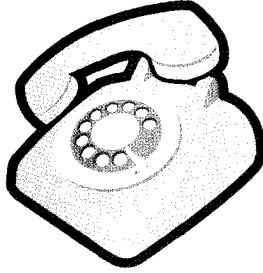
### ▶ 간병 서비스

목이 불편한 입원 에이즈환자를 위하여 간병교육을 이수한 건강한 HIV 간병인을 파견하여 간병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인권복지과로 신청 (02-2675-4111)

### ▶ 동료상담 서비스

훈련받은 감염인이 신규 감염인에게 자신의 경험과 함께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각자스런 에이즈감염 사실로 인하여 겪는 신규 감염인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신청

HIV/  
AIDS?



## 감염인 수기공모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감염인 수기 및 사를 공모 합니다.

- 제출기한 2004년 9월말까지
- 참가대상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그 가족, 자원봉사자
- 내용 및 형식
  - 수필 : 200자 위고지 30매 내외 (A4용지 5장 분량)
  - 감염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애환
  - 감염인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
  - 시 : 자유시 형식, 문량제한 없음

- 보낼 곳
  - 우편 : (150-038)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57 세미빌딩 307호
  - 전자우편 : webmaster@aids.or.kr
- 시상
  - 우수상(1명) : 500,000원
  - 상려상(3명) : 300,000원
  - 입상상(5명) : 200,000원
  -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증정
  - 내역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으며, 향후 특별절차 없이 교육이나 홍보 자료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